

이인우

본회회원, 전주대학교 교목, 총신대 PhD 과정  
수료

# 일반은총으로서의 기독교적 국가관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떠해야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은 이전부터 고민해 오던 문제였다.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신자가 어떠한 국가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위상이 결정짓게 된다. 특히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려 할 때에 그 문제가 국가의 영역인지, 교회의 영역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한편에선 거의 무조건 국가에 맹종하는 교회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정 반대로 사사건건 국가의 정책과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교회들로 양극화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도 한국교회 내에서는 계속 될 전망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올바른 '국가관'의 정립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먼저 국가의 기원과 임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처음부터 살펴본 후에 두 번째로 국가교회(state church)와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은총으로서의 기독교적 국가관 인식의 중요성으로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일반은총으로서의 국가의 기원과 임무

### (1) 일반은총으로서의 국가의 기원

국가(state, 라틴어 status=지위, 위치, 상대: politeia(헬))란 공통적인 특징들을 통하여 묶여진 국민들에 의하여,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일정한 물질적이고도 이념적인 문화재들을 보존하기 위해 국민과 국토와 국가 이념이 일원적인 최고의 지배권력에 의해 통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묶여진 정치질서라고 보통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권과 국민과 영토는 국가형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Max Weber는 국가란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권력을 독점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의 공동체'라고 정의했다.<sup>1)</sup>

이와 같이 국가는 일정한 지역 안의 국민들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존재할 때 비로소 성립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국가 권력의 기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Platon은 국가의 기원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본다.<sup>2)</sup> 그래서 Platon은 국가가 순수한 자의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 '契約說'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Hugo Grotius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연법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게 된다.<sup>3)</sup> 그러나 그는 '正義가 국가의 기초다'(iustitia fundamentum regnorum)라고 말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밝

1) Max Weber, staatssoziologie. hrsg. V. J. Winkelmann, Berlin, 1966. 2. Aufl. S. 27-28 in 「기독교사상」 1964. 11월호, p. 59.

2) Johannes Hirschberger, 「서양철학사(상)」, 강성위 역, (대구:이문출판사, 1988), p. 177.

3) Ibid, p. 177.

했다고도 볼 수 있다.<sup>1)</sup>

Aristoteles는 “국가란 시민들의 공동체로서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가 국가를 이룩하는 요소요, 국가의 현실이다”고 말한다.<sup>2)</sup> Aristoteles는 국가의 기원이 군서 본능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충동에서 기인한다고 보면서, 인간은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되고 사회를 이뤄야만이 인간 각자의 삶의 안정과 목표를 가장 잘 조화있게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었음이 확실하다.

국가권력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해들이 존재하나 고대와 중세에는 대체적으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종교나 신화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신이나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서양의 왕권신수설 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천자 사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신이 국가를 다스리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질서 있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통치권을 왕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세로 오면서 왕권신수설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설명이 시도되었다.

Thomas Hobbes는 인간이 국가를 만들기 이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bellum omnium contra omnes)이었다고 하며,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합의하여 전체를 살리며, 질서를 세워주는 하나의 절대권력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즉 통치권력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연법에 근거한다는 것이다.<sup>3)</sup>

루소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적대적인 사회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 전체의 보편의지를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답변을 주고 있는가 알아보자.

성경은 분명하게도 모든 존재와 근원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한다. 롬 11:36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오며(from), 하나님께로 말

1) Ibid, p.185.

2) Ibid, p.292.

3) Thomas Hobbes, *Leviathan* Neuwied, 1966, s.66f. in 『기독교사상』 1984. 11월, p.59.

미암다가(through), 하나님께로(to) 간다고 말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권위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세워지거나 존재할 수 없음을 로마서는 단호히 주장한다. 더 나아가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통해 모든 권세(obrigkeit, Authority)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며, 이 권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는 대행자(Agent)라고 설명한다. 바울은 여기에서 세상의 권세 곧 국가권력을 원칙적으로 신성한 것으로 보면서 신자들에게 복종하도록 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도 벵전 2장 13절에서 17절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세상의 제도에 복종하고 황제나 총독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있다. 마 28장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였고, 엡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도 모든 지배와 권세와 통치 권력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권세에 대한 모든 성경적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왔다 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국가의 기원을 하늘이나 혹은 신에게서 찾았던 고대 국가의 정치철학과도 일치되는 개념인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성경적 근거가 부패한 권세나 권력에게까지도 무조건적 맹종을 해야만 된다고까지는 해석되지 않는다. 세상의 범죄로 부패하지 않았을 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계속 낳아 후손을 이루면서도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거대한 혈족 사회가 형성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곧 국가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국가는 지금의 부패한 사회에서의 현존하는 국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인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일반은총을 통해서도 자신의 나라와 뜻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계신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기원은 Platon이 말한바 自然에서 왔다거나, Aristoteles가 말한

바 군서 본능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충동에서 왔다거나, Hobbes의 자연법, 루소의 계약법, Lock의 투표법 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일반은총으로서의 국가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주장할 수 있다.

## (2) 일반은총으로서의 國家의 任務

Platon은 '정의가 국가의 기초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국가가 망하는 원인을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비겁함이라든지, 전쟁경험이 적다든지 하는 데서 찾지를 않고, 모든 방면에 널리 퍼져있는 윤리적인 퇴폐(법률:688C)에 있다고 보았다.<sup>1)</sup>

Aristoteles도 국가의 원래적인 과제는 선하고, 완전한 생활 즉, 윤리적, 정신적으로 계발된 고귀한 인간성에 있다고 주장한다.<sup>2)</sup> Augustin도 그의 유명한 책 『신국론』 4장 2절에서 정의를 내동댕이친 국가는 이미 강도들의 집단과도 다를 바가 없다고 쓰고 있다. 스콜라 학파의 대부 격인 Tomas Aquinas는 국가란 백성들을 행복하고 덕이 있는 생활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필요한 것이 평화라고 하였다. 이 평화의 개념은 이미 Augustin에 있어서도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었다. Aquinas는 국가의 최고 목적은 신 곁에서의 정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Calvin대학의 교수 Henry Meeter도 국가의 임무를 正義(Justice)를 실시하고, 국가와 국민의 일반적 복리를 增進시킴에 있다고 보았다.<sup>4)</sup> 종교개혁자인 Luther 역시 국가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

1) Johannes Hirschberger, op.cit.p.185.

2) Ibid, p.290.

3) Ibid, pp.605-606.

4) H. Henry Meeter, op.cit, pp.102-113.

하게 창조된 것으로 정치는 타락한 세상의 부패를 막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와 질서의 유지를 해야만 한다고 보았다.<sup>1)</sup> 정치는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Agent)로서 선한 자에게는 상을,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고 Luther는 이해한다. 또 그는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신자는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된다고 말했다.

Calvin은 통치자(magistrate)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로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케 된다고 보았다.

For it signifies that they have a mandate from God, have been invested with divine authority, and are wholly God's representatives, in a manner, acting as his vicegerents.<sup>2)</sup>

계속해서 Calvin은 국가의 임무란 정의의 실현과 사회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종교적인 건전한 교리와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고 말한다.

Civil government has as its appointed end, so long as we live among men, to cherish and protect the outward worship of God, to depend sound doctrine of piety and the position of the church, to adjust our life to the society of man, to form our social behavior to civil righteousness, to reconcile us with one another, and to promote general peace and tranquillity.<sup>3)</sup>

다시 말해 Calvin은 정부의 임무로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각 개인이 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며, 인간 사이의 사립과 덕망을 격려하며, 각종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

1) 부터의 국가관은 타락으로 인해 세워진 비상기구로서 인간의 더 깊은 타락과 죄악을 제재하기 위해 생긴 하나님의 '채소한 일'(opus alienum)이고, 이에 반해 교회는 하나님의 '고유한 일'(opus propria)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그의 국가관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이원론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2) Inst., 4, 20, 4.

3) Inst., 4, 20, 2.

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곳곳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sup>1)</sup>

A. Kuyper는 정부란 하나님의 공의 실현의 일반은총의 수단(*instrument of common grace*)이라고 강력히 말하면서 정부의 책임은 공동 복리의 증진과 복잡한 주에서의 통일 보존이 되도록 하는 협동을 요건으로 하여 이룩할 목적들을 實現시킴에 있다고 하였다.<sup>2)</sup> Kuyper는 그의 영역주권 사상에서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 밑에서 다 동일하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의 주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Kuyper 자신도 영역주권을 말할 때 항상 이것을 국가의 주권영역과 연결시켰으며, 국가주권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하나의 규정영역이기는 하나 다른 주권들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sup>3)</sup> Kuyper는 국가영역을 '영역들 중에서의 영역' (*De staat is de kring der kringen*)이라고 정의하여 영역주권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sup>4)</sup>

74 로잔언약에도 모든 정부는 교회가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평화와 정의와 자유의 상태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고 분명히 宣稱되어 있다.<sup>5)</sup>

국가의 기원과 임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의 견해를 요약해 보면 국가란 정의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종교와 복지생활을 평안하고도 공평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무를 부여받은 일반은총으로서의 신적 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1) Inst., 4, 20, 3.

2) H. Henry Meeter, op.cit, p.84.

3) C. Veenhof, Souverreninifelt in eigen kring.(Kampen:J.H.Kok,1939). p.35. In 『로고스』 36집. p.72.

4) Ibid, p.41.

5) 『The Lausanne Covenant』, op.cit., pp.19-20. "It is the God-appointed duty every government to secure conditions of peace, justice and liberty in which the church may obey God, serve the Lord Christ, and preach the Gospel without interference."-in 13. Freedom and persecution.

이와 같은 결론을 가지고서도 일반은총으로서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역사상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 형태들 중에서 특히 국가교회(state church)와 재세례파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 2. 國家와 敎會와의 관계 (국가교회와 재세례파를 중심으로)

일반은총으로서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묻는 물음은 당시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다를 것이다. 국가의 성격이나 질도 다양하고 문화적, 역사적 배경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교회가 관계한 국가에 대한 태도는 천태만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기독교 100주년을 벌써 지낸 한국교회는 신자가 전 인구의 25% 라는 경이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선교 초기에 각 교파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국가관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에 대해 갖는 태도가 교파마다 매우 달랐다. 그 원인은 구라파나 미국에서 이미 존재했던 기존 교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형태와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국가 뿐 아니라 교회들도 각자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태도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천태만상의 다양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때 이삼열 교수는 크게 3가지로 일치와 귀속의 관계, 분리와 공존의 관계, 소외와 탄압의 관계가 있다고 분류한다.<sup>1)</sup>

- 
- 1) 1. 일치와 귀속의 관계에 속한 교회로서 동로마 제국의 교회, 중세의 카톨릭 교회, 영국의 성공회, 스웨덴의 루터교, 독일의 제국교회들이 있고,  
2. 분리와 공존의 관계에 속한 교회는 독일의 국민교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유럽제국의 교회들과 한국, 일본, 대만, 일부 동구권의 교회가 이에 속하며,  
3. 소외와 탄압의 관계에는 초대교회와 회교 국가 안에서의 기독교,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하에서의 신교교회, 중공의 교회(요즘은 많이 개방되어 2번의 유형으로 가고 있는 중임)와 스탈린 체제 하에서의 동구교회, 문화혁명 당시의 중공교회, 현재 북한의 가정교회가 이에 속한다고 이삼열 교수는 분류한다. (이삼열, 『기독교와 국가』, in 『기독교사상』 1984년 11월, pp.48-49).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한 국가 안에서도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매우 여러 형태를 지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본 장에서 다룸으로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형태로는 일치와 귀속의 관계로서 '국가교회' (state church)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교회는 국가의 통치자가 동시에 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있으면서 제정일치적인 구조를 갖는 교회이다. 여기에는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전의 러시아 차르(Czar)정권의 러시아 정교회와 중세의 Roman Catholic 그리고 영국의 Anglican church(성공회)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교회는 교회보다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 일을 막강한 정치,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가가 곧 교회가 되어 이 땅 위에서 완전한 神國을 건설하려는 이상을 그 목표로 하는 교회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과연 Czar 통치하의 러시아 정교회나 중세의 Roman Catholic 그리고 성공회 등등의 국가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바람직하고도 이상적인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왕이나 황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였을 때는 다소 괜찮았던 입장이었지만 왕이 타락할 때에는 잘못될 수밖에 없었기에 이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일 신실한 왕이 있어서 교회를 잘 다스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은총의 영역 하에 있는 국가의 왕이 구속적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특별은총으로서의 교회의 영역을 침범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Henry Meeter는 다음과 같이 강경히 반대한다.

국가는 결코 여하한 종류이든지 국교를 건설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국가 자체의 정당한 영역의 한계를 넘어가는 행동일 것이다. 국가는 종교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아니고 자기 영역 안에서 인류 사회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자연적 공동유익을 추진시키는데 있다. 국가로서 국교를 둔다는 것은 교회의 자주권을 침범함이다. 그 이유는

교회란 것은 자체의 분야에 자주권을 가졌으며 그 왕 되신 그리스도밖에 다른 권위를 그 영역에서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국교를 건설함은, 종교상 문제에 대한 개인의 판단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백성 전체가 종교문제에 대하여 일정하게 생각하고 완전한 종교적 표준들을 주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국교를 건설함이 국가의 임무는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각기 특이한 활동 영역을 받았으며 결코 교회가 국가의 手足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1)</sup>

교회사적으로도 볼 때에도 국가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영성과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빼앗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가져왔다. 그러므로 국가교회(state church)는 교회가 국가에 대해 취할 바람직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형태로는 국가에 대한 적대적 분리관계인 재세례파(Anabaptist)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관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는 주의 말씀을 오해하여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 ‘聖, 俗 二元論’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입장에 속하는 종파로는 크게 여호와의 증인과 재세례파 등이 있다. 이들은 일반은총을 무시하고, 특별은총만을 강조한다. 재세례교인들은 교회 타락의 가장 주된 요인을 국가와의 결합으로 보았고, 교회와 국가가 결합했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2)</sup> 그들의 『실라이타임 신앙고백서』<sup>3)</sup>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H. Henry Meeter, op.cit. p.143.

2) William Estep, 『재침례교도의 역사』, 정수영역, (서울:요단출판사, 1985), p.289.

3) 1527년 초에 일단의 Anabaptist들이 스위스의 Schleitern에 모였는데, 이때 그들은 초기 Anabaptist의 가장 권위 있는 교리 문서인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다. 작성자는 Michael Sattler로 보이며, 총 7개항으로 되어있다. [세례, 금령(파문),떡을 떼기, 힘오로부터의 분리, 교회 안에서의 목사들, 검의 사용, 맹세]

믿는 자들은 병역과 마찬가지로 로마교와 프로테스탄트의 국가 교회를 포함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4항 요약)

치안 판사의 검은 악한 자를 벌하는 치안 판사에 의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바이다. 교회에서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出敎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력의 사용을 금하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치안 판사직의 임명을 수락할 수 없다. (6항요약)<sup>1)</sup>

위의 신앙고백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 대로 재세례파들은 여호와의 증인과 마찬가지로 병역과 정당한 치안 유지권을 부인한다. 물론 당시의 국가 교회로서 Roman Catholic이 너무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그들의 신앙고백이 이처럼 치우쳤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들의 이상인 초대, 사도적 교회를 재건함에 있어 당시에 현존하는 국가의 권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sup>2)</sup> 하지만 재세례파나 여호와의 증인같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다면 도무지 교회는 국가 안에서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교회 역사상 국가 없이 교회만 존재했던 때가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라임타임 신앙고백서』 6항에 치안판사의 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설명한 후 신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치안 판사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오류인 것이다.

일반은총으로서의 국가의 첫째 임무가 정의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부패한 이 세상에서는 치안 유지를 위해 응징의 검을 반드시 써야만 한다. 재세례파들과 같이 치안 판사직을 신자들이 회피하고 불신자에게만 떠맡긴다고 하여 신자의 양심이 과연 깨끗해 질 수 있을까?

이웃나라에서 자국의 교회와 나라를 공격해 올 때 불신자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게 한다는 것은 정의와 공평성에서 볼 때 이미 잘못된 것이다. 타국의 탐욕적인 무력도발에 대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국가와 국가 안에 존재하는 교회

1) Tony Lane, 『기독교사상사』, 김웅국역. (서울: 나침판사, 1988), p.307.

2) William Estep, op.cit, pp.289-290.

는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개혁파 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교회와 재세례파의 입장을 따를 수 없다. 이들 모두는 양극단으로 치우친 것으로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개혁파 교회가 취해야 할 성서적이고도 바람직한 국가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일반은총으로서의 基督敎的 國家觀 인식의 중요성

선교 100주년을 자랑하는 한국교회는 국가에 대해 크게 세 부류의 형태로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던 ‘젤롯식 혁명주의’가 그것이다.

이 부류는 Luther의 두 왕국 사상을 거절하고 지상 위에서만의 완전한 정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졌다. 이것은 이 지구 상에서 완전한 Utopia를 인간 스스로가 건설해 보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와 같은 바램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낳게 되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각각 남미와 한국이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발생한 자립적인 신학 방법론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 역사의 質的 차이를 혼동하고 말았다.

민중신학은 구원 그 자체를 민중의 恨의 소리를 들어서 풀어주는 ‘한풀이’와 ‘인간성의 實現’으로 이해한다.<sup>1)</sup>

또 전호진 교수는 민중신학이 기독교적 교회 사명을 정치참여와 사회변혁으로만 축소시키는 잘못된 교회관, 하나님을 세속 역사에만 제한시키는

---

1) 김명혁, 「신학운동이 아닌 사회운동」, In 「심경과 신학」, Vol.1, p.259.

단일론적 역사관, 구원을 가난한 자의 특권으로 해석하는 배타주의, 사회악을 비판하면서도 지상의 Utopia를 꿈꾸는 모순된 낙관주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sup>1)</sup>

둘째로는 '재세폐파적 폐쇄주의'를 들 수 있다.

이 부류는 재세폐파들과 같이 국가와 정치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절대적 정종분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인의 심령 교화에만 힘쓰는 부류로서, 세대주의자와 근본주의자 그리고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막 12장 17절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귀절을 오해하며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인 악과 부패를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면서 자신이 속해있는 국가와 사회 안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오로지 자신의 종교적인 영역에만 마음을 쓴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 아래서는 조금도 기독교적 개인 윤리와 사회윤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게 되고 만다.

셋째로는 '명목적 정·종 분리주의'가 있다.

이 부류는 말 그대로 이름만 정·종 분리의 원칙을 고수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 제국이 일제의 무력에 의해 해체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영역이 개인의 심령 교화 외에는 허용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정·종 분리의 원칙을 가져오게 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 장로교와 일부 감리교와 침례교는 이름만 정·종 분리의 원칙을 내세웠지, 실제로는 오히려 정·종 유착의 관계를 많이 맺어왔다. 명목적 분리주의는 중산층 및 특권계급과 제휴하고서 오히려 하층계급을 도외시하고 사회적 불의와 구조적 부패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하층계급은 교회를 부인하고 혁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70년 이후에 전개된 민중신학은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1) 전호진, 「교회와 이데올로기」, (웨스트민스터 선교부 한국지부편, 1984) p.26 이하.

망각한 채 명목적으로만 정·종 분리를 외치면서 권력과 부유층에 결합하고,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한 반동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1)</sup>

이상과 같이 젤롯식 혁명주의, 재세례파적 폐쇄주의, 명목적 정·종 분리주의의 3가지 사상으로 팽배한 현 한국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바람직한 기독교 국가관은 과연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다종교화되고 다원화된 현 사회 속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內在와 超越의 有機的 긴장관계' 라고 대답하고 싶다.<sup>2)</sup>

이에 대해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귀절은 매우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귀절이다.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말에서 특히 권세들이란 말은 헬라어 '엑쉴리아이스'란 말로서 관사 없이 복수로 사용되었으니 이를 다시 번역하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등에 있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신자의 정치윤리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음에 틀림없다. 1절의 '모든 권세'란 말은 헬라어 원문 '하이 우싸이'<sup>3)</sup>에 대한 오역이다. 여기서 '우싸이'는 동사의 여성, 복수, 분사, 주격으로 '현재에 존재하는'이라는 뜻으로서 정관사 '하이'와 합한 '하이 우싸이'는 '모든 권세'가 아니라, 바울의 정치윤리 관심상 '현재에 존재하는 바로 그 국가 정부'라고 해석될 수가 있다.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나, 특히 국가정부의 권세 역시 하나님으로 기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국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그는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국가에 대해 일반은총적 '엑쉴리아'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국

1) 김영한, op.cit, p.756.

2) 이 관계를 '연관과 분리의 유기적 관계'로 보아도 무난할 것 같다.

3) Nestle-aland 판, Novum TESTAMENTUM GRAECE, 2판.

가 영역 안에 내재하면서 국가에 순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기서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왕권신수설자들이 흔히 말하는 세속적 통치자에 대해 절대적,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유일한 권세(THE ONLY POWER)로서 절대적, 무조건적 성격을 띠지만 국가정부의 권세는 하나의 권세(A POWER)로서 제한성을 가진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권세는 하나의 권세(a power)로서 제한성을 가진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권세는 상대적, 파생적 권세로서, 맡겨진 임무를 다 할 때에만 인정할 수 있는 조건적 권세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위정자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자신의 한계성 속에서만 통치와 권세를 발휘할 수 있다.

국가 권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세 역시 상대적, 파생적, 조건적인 권세만을 가진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를 지배할 권세를 위로부터 받지 않았다. 교회와 국가의 참 지배자는 유일한 권세(the only power)로서의 하나님 뿐이시고, 교회와 국가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의 권세(a power)일 뿐이다.<sup>1)</sup>

Calvin은 정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2개의 정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영적 정부로서 인간을 영적인 면에서 지도하며,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시민 정부로서 국민에게 시민으로서의 인간됨을 지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더 나아가 Calvin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위정자에게 복종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은 잘못임을 경고하였다.<sup>3)</sup> 이와 같이 Calvin은 단 한순간이라도 정부와 정치를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세윤 교수는 전체주의 체제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도 정치는 자기주장하려는 의지(Selbstbehauptungswille)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

1) 신성종, 「신약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in 『신화지남』, 42권 3집, pp.79-80.

2) Inst., 4, 20, 1-4.

3) Inst., 4, 20, 4-7.

고 본다.<sup>1)</sup> 우리는 이와 같이 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김세윤 교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교회는 구속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 특별한총 영역의 하나님의 도구이고, 국가와 정치는 정의와 복지사회를 구현하며 종교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 일반은총 영역하의 하나님의 도구이다.

정치에 참여함에 있어서 집단적인 교회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A. Kuyper가 말한 대로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해야만 하는 고유목적과 고유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각자의 영역에 충실하여야 한다.

Luther가 신자를 '의인인 동시에 죄인' (simul justus et peccator)이라고 한 것과 같이 교회는 국가 안에 내재하면서도 동시에 초월해야만 한다. 국가와 세상은 일반은총의 영역 하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는 존재이다. 국가와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고, 권세를 잘못 사용하며, 죄로 심히 부패되어 있는 점이 너무 많이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자율성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타락한 국가들에 대해서 초월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해 요나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반은총의 영역 하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세상 통치기구로서 교회를 보호하며, 인간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가려는 임무를 지녔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 안에 內在해야만 한다. 교회는 이와 같이 국가와 더불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A. Kuyper는 '칼빈주의의 강의' (Lectures on Calvinism)<sup>2)</sup> 에서 Calvin의

1) Idem.

2) 1898년 A. Kuyper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청으로 「스토운강좌」를 하였다. 그 강의가 바로 칼빈주의 강의란 제목으로 6번에 걸쳐서 칼빈주의에 대해 논한 것이었다.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칼빈주의와 종교, 칼빈주의와 정치, 칼빈주의와 과학, 칼빈주의와 예술, 칼빈주의와 미래)



신권정치를 거부하면서 국가와 교회의 연결보다는 Luther의 분리시키는 입장을 더 지지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 국가라는 기구적인 관계를 거부한다는 말인 것이다.<sup>1)</sup>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국가와 엄격히 분리되나, 개인의 국민자격으로는 유기적 관계가 가능하다. Kuyper는 '기독교 국가'(또는 국가교회: church state)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백성', '기독교 국민'이라는 말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하는 기독교 개인의 유기적인 정치참여를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았다. 경험으로 볼 때 기구적인 기독교의 힘보다는 오히려 개인과 교육과 기독교적 여론의 방법에 의해 국가가 더 크게 변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조용한 개혁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므로, 국가와 교회의 절대적 분리란 실제로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된다. 절대적 분리(초월)란 교회가 스스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使命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종 분리란 법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고유영역을 인정한다는 개념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결론으로, 한국교회는 국가 위정자들에게 무조건 여당식 입장의 지지를 보이는 권력지향성과 또 한편으로는 항상 야당적 입장에 서서 정부에 대해 반대만을 주장하는 반체제적 혁명 기질 모두를 버려야만 한다. 교회는 오히려 선지자적 使命을 가지고 위정자들에게 국가 시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와 권면할 책임을 지닌다. 국가의 위정자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들의 사명을 私心없이 시행해야만 한다. 주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편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와 국가는 서로의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서로간의 內在와 超越의 유기적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가장 바람직한 관계로서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게 될 것이다.

1) H. Thielcke, Theologische Ethik. Bd.22, 고법서역, p.195. In 김영한, op.cit., p.768.

#### 4. 결론

복음이 전해진지 겨우 100여년 조금 넘는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일반은총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혹자는 '한국교회에 특별은총도 사라져 가는 상황인데 왜 일반은총을 얘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특별은총의 역사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있어 왔으며, 또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특별은총이 교회안에서만 개교회적 성장과 개인의 구원 그리고 개인의 축복 등의 협소한 의미로만 이해, 적용되어 왔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신자들이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마지못해 혹은 그러저러 살다가 주일만은 거룩해 보이는 선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대가와 비용을 들이지 않은 값싼 은총(Billige Gnade)인 동시에 더 나아가 교회의 불공대천의 원수(der todfeind unserer kirche)가 될 뿐이라고 말한 본철포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안다.<sup>1)</sup>

우리 신자들은 구원의 문제가 핵심인 특별은총의 영역과 함께 동시에 존재의 터전으로서 일반은총의 영역에서도 살고 있다. 신자들은 주일 단 하루만이 주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일의 개념으로 살아야 할 의무와 특권을 동시에 지닌다. 6일과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고, 주일과 교회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원론적 사고는 비성서적인 개념이다. 모든 날과 이 땅과 이 땅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연환경과 문화와 국가 그리고 그 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라는 말씀이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 이 개념이 바로 일반은총(Common Grace)이다.

1) Evangelischer Gemeinde katechismus. (Germany:Gu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82), pp.441-442.

재세례파와 같은 신비주의자들과 신흥이단종파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국가 등의 일반은총을 무시하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고, 펠라기우스파와 로마교회는 이 세상의 과학과 예술과 공업 등이 아직도 타락한 인간 자신에게 남아있는 선의 산물이라는 낙관주의적인 사상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는 이교 사회나 불신자 세계에서라도 자연환경과 문화와 국가와 예술 등이 잘 통치되고 발전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일반은총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만하지도 말고, 이 세상과 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이 칼빈주의자의 태도이다.<sup>1)</sup>

로마 카톨릭과 개혁주의 신앙의 차이점을 전자가 일반은총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반면에 후자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되어야만 한다고 Cornelius Van Til은 주장한다.<sup>2)</sup>

Herman Bavinck는 성경 문자를 멸시하고, 성령의 내적 조명만을 높이는 일, 말씀을 섬기는 것이 직분임을 망각하고 아무나 준비 없이 하는 즉흥적 설교를 더 좋아하는 일, 교회와 言約, 직분과 성례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행하고 계심을 멸시하는 일, 그리고 폐쇄적인 고립을 좋아하는 것: 예술, 학문, 문화 및 지상생활에 속한 모든 물질에의 혐오: 가정, 사회 및 국가 안에서 우리가 저야할 사명을 무시하는 것-이 모두 일반은총을 무시하는 폐쇄적인 재세례주의적인 조류의 결과라고 분명히 지적한다.<sup>3)</sup> 또 Bavinck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긴하나 자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존립하며 그것에 힘입어 살고, 교회와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생활권을 파괴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1) H. Henry Meester, op.cit, p.59.

2) Cornelius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신국원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p.199-206.

3) H. Bavinck, op.cit, pp.49-55.

것들을 다시 회생시켜 구원코자 오셨다 라고 말한다.<sup>1)</sup>

결론으로 우리 개혁주의는 자연환경과 문화와 국가를 일반은총의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이와 같은 인식을 통해 그것들을 특별한은총의 영역으로까지 이끌 수 있어야만 하겠다.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데 게을러서는 안될 것이다. 21세기를 앞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한은총만이 아니라, 일반은총과의 관련을 통해서 이뤄져 나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卍

## <참고문헌>

### 1. 한서

- \* 고범서. 「기독교와 사회윤리」 서울:범화사, 1983
- \* 김세윤. 「우리시대의 하나님나라」 정일웅편 서울: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0
- \* 김영한. 「현대신학과 개혁신학」 서울:대학촌, 1998
- \* \_\_\_\_\_, 「하이데거에서 리피르까지」 서울:박영사, 1987
- \* \_\_\_\_\_,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 \* 김태석. 「아브라함카이퍼의 영역주권사상연구」 (로고스 36집, 1989)
- \* 박아론. 「현대 신학연구」 서울:기독교문서 선교회, 1989
- \* \_\_\_\_\_, 「현대신학속의 보수신학」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88
- \* 박형룡. 「구원론」 박형룡 박사전집, 5권, 서울: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 \* \_\_\_\_\_, 「서론」 박형룡 박사저작전집, 1권, 서울: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3
- \* 신복윤. 「칼빈의 국가관」 (신학지남. 40권 2집)
- \* 오인탁. 「종교교육과 국가」 (기독교 사상 1982. 3)

---

1) Ibid, p.76.

- \* 이삼열. 「기독교와 국가」 (기독교 사상 1987. 5)
- \* 조정희. 「문화의 종교성」 (로고스, 35집, 1988)
- \*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편.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세계대회 자료집」 서울:민중사, 1990

## 2. 원서

- \* Armstrong, William Park, Calvin and the Reformatio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0
- \* Barth, Karl, Dogmatics in Outline, translated by G.T.Thomson, London: SCM Press, 1975
- \* \_\_\_\_\_, The epistle to the romans, Translated by E. C. Hosky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 Bonhoeffer, Dietrich, Gemeinsames Leben, Munchen: Chr. Kaiser Verlag, 1987
-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 Craig, William Lane, Apologetics an introduction, Chicago: Moody Press, 1977
- \* Dembowski, Hermann, Karl Barth, Rudolf Bultmann, dietrich Bonhoeffer, Dusseldorf: Neukirchener Verlag, 1976
- \* Evangelischer Gemeinde Katechismus, Germany: Gu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82
- \* Geisler, Norman, Christian Apologetic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7
- \* Manschreck, Clyde,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worl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4
- \* Van til, Cornelius, Common Grace and the Gospel,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n Publishing Co., 1977

### 3. 역서

- \* Althaus, Paul, 「교의학 개론」 윤성범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0
- \* Bavinck, Herman, 「하나님의 큰 일」 김영구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 \_\_\_\_\_, 「일반은총론」 차영배 역,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7
- \* \_\_\_\_\_, 「계시철학」 위거찬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 Cohmm, Anold B, 「칼빈주의적인 개혁교회의 국가관」 문전섭 역, (기독교 사상, 1989, 1)
- \* Custance, Arthur C, 「칼빈의 교리신학」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편역,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89
- \* Geisler, Norman, 「기독교 철학 개론」 위거찬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7
- \* Haroutunian, Joseph, 「칼빈의 조직 신학 해석」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8
- \* Hirschberger, Johannes, 「서양 철학사(상)」 강성위 역, 대구: 이문출판사, 1988
- \* Ku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호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9
- \* Reymond, Robert L, 「개혁주의 변증학」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9
- \* 로날드 사이더, 르네빠디야, 「복음, 전도, 구원, 사회정의」 한화룡 역, 서울 IVP, 1988
- \* Stott, John R.W,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효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9
- \* The Lausanne Covenant, 조종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 Van Til, Jenry R, 「칼빈주의 문화관」 이근삼 역, 부산: 성암사, 1984
- \* Warfield, Benjamin B, 「칼빈, 루터, 어거스틴」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8